

전남 관광객 6000만명 '목표 달성'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인기 지난해 6300만...전년비 700만 ↑ 주요 축제 성향...순천 500만·광양 115만·강진 44만명씩 증가

전남도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6000만명 관광객을 지난해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3년 내 관광객 6000만명을 목표로 해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전남도는 28일 "2023년 한 해 6300만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의 합계로 2022년(5600만명)보다 700만명(13%)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지역별 대표 관광지 등이 지점으로 등록돼 있다. 관광객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제104회 전국체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와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광양매화축제

등 시·군별 주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 때문이란 분석이다.

시·군별로는 순천·광양·강진 지역 관광객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새로운 박람회 연출과 관광객의 동선 분석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했고, 광양 매화축제는 구례산수유 축제와 시기가 겹쳐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며, 강진 남미특사의 아름다운 절경·서부해당화 등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이 주효했다. 2023년 한 해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지점은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 습지로 2022년보다 500만명이 증가한 780만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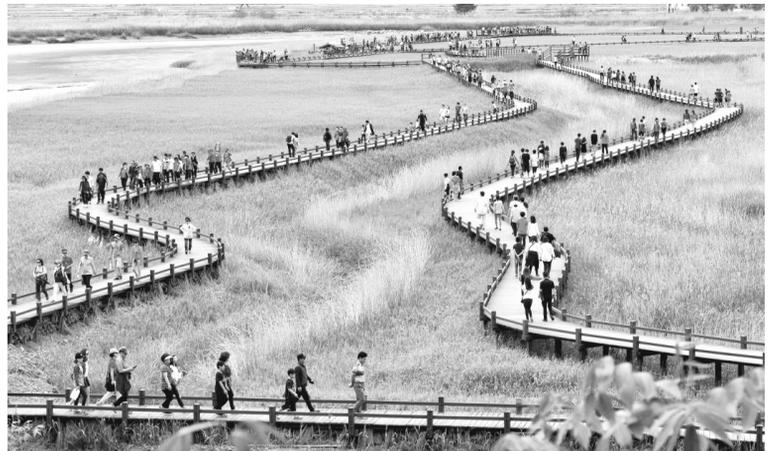
광양 청매실농원도 전년보다 115만명 늘어난 145만명이, 강진 남미특사가 44만명이 증가한 59만명이 방문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3년간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비상하는 글로벌 전남관광의 기틀을 다질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로컬 관광자원을 5대 분야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전남을 찾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지역을 다니다가도록 전남관광 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숙박·체험시설·교통 등 원스톱 예약·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은 우수한 산림·해양자원,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지역"이라며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 운영을 통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도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관광객 증가는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가 있따르는데,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시·군별 주요 축제 개최 등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순천만 정경. <전남도 제공>

고흥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본격 추진

도, 투자사업 심의 '조건부' 통과...광양 '백운유원지 둘레길' 반려

광양시가 백운저수지 일대에 '백운유원지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사업 목적·규모·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화가 미흡하고 타당성조사 내용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다만, 소록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과 신안 팔금도 관광호텔 신축 사업 등은 '조건부' 추진토록 해 탄력이 붙게 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22개 시·군이 제출한 36개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4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구체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반려 조치했다.

광양시가 오는 2026년까지 시비(50억)에다, 도

비(50억)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한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 둘레길 조성성이 만능이 아니라며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접근을 주문했다.

광양시는 봉강면 봉당리 백운저수지 일대에 둘레길·전망대·스카이워크·주차장 등을 조성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신안군이 자은도 일대 23만 669㎡에 치유센터·테마숲을 만드는 '자은 치유숲 조성사업'도 반려 조치를 받았다. 군비(56억)에 도비(25억)를 지원 받으려는 계획과 관련, 다른 지자체에 조성된 치유의 숲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수입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담양군이 만성리 일대 10만 7789㎡를 테마워킹으로 조성하려는 '남도형 생태워킹 관광자원화

사업'도 치유숙박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전체 사업비(110억원) 중 도비(30억5000만원)와 군비(79억5000만원)를 제외한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라 '반려' 됐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의 감대중 100년 특별회의(7억), 국제드론레이싱대회(16억), 영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69억), 무안군 신청사 건립사업(810억), 신안 팔금 관광호텔 신축사업(110억), 안좌 치유의 숲 조성사업(73억) 등 32건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했다.

고흥 풍양면 청사건립공사(53억), 2023 한중일 e스포츠대회(여수 11억), 제 1회 예향 전남 전국연극제(여수 3억), 고흥 유자석류축제(10억), 제 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10억), 해남 우수영유스호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150억) 사업 등 42건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내거나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백신 제조 핵심 mRNA 정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가 지난 23일 화산백신산업특구에서 mRNA(핵 안에 있는 DNA의 유전정보를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RNA) 백신 제조의 핵심기술인 mRNA 정제 및 분석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토리우스 비아세퍼레이션(Sartorius Bia Separations)의 mRNA 정제 전문가 토마스 코스텔렉(Tomas Kostelec)은 mRNA 분리 및 분석 기술 동향 및 적용 사례를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mRNA 백신 및 치료제의 원부자재 생산 기술은 전남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반드시 필요

한 기술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류강 센터장은 "생물약연구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mRNA 생산과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백신 및 세포치료제의 임상시료를 생산해 온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과 mRNA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산 백신산업특구를 보유한 전남도는 백신과 면역치료 중심 첨단바이오 전주기 인프라를 강점으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연대학 서포터즈 발대식

전남도는 지난 24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24년 금연 대학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학 내 금연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세한대, 동신대, 전남대(여수), 청암대, 초당대 5개 대학과 시·군 보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학교 금연 프로젝트를 시작해 청년들의 흡연 시작 차단, 흡연자의 금연 장려 등을 권장해왔다.

<전남도 제공>

도, 전 직원 '무안공항 홍보대사'로...해외여행 경비 지원 확대

전남도가 전 직원들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등 전남 관광 홍보와 무안공항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안공항 노선 활성화 및 전남 관광지 홍보를 위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액으로 5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 분청, 전남관광재단 등 전남도 소속 공무원(6879명)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무안국제공

항 활성화 계획'을 공모, 500~1000명(1팀 당 4명 이상)을 선발한 뒤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에서의 전남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게 전남도 계획이다.

올해는 공무원 1인당 50만원을 지원키로 해 전년도(1인당 30만원)보다 지원액을 늘렸고 가족들을 동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3~5일 간 무안공항을 통한 국제선 이용의 편의성을 알리고 2024~2026 세계관광문화

대전을 진행중인 전남 관광 홍보도 추진한다.

일각에서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전이 지연되면서 더디기만 한 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제선 노선을 홍보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